

온 세상 혼탁하나 나홀로 깨었어라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⑥ 제자들의 격의법담

경허 스님의 법을 신봉한 직지사 제산(齊山) 스님은 청정한 지계행과 높은 덕행을 겸비해 제방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제산 스님은 경허 스님이 합천 해인사 조실로 있을 때 시봉을 도맡다 시피했다.

당시 400~500명의 대중이 상주하는 대사찰에서 경허 스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경허 스님을 위해 대중 모르게 곡자를 마련하고 안주감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산 스님 남몰래 안주 올리고 남전 스님은 그 소식에 한소식 만공 스님 몸바쳐 스승공양 다짐 격의도리에 '법따르기' 이어져

제산 스님은 입소문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깊은 밤이면 몰래 짙 밖으로 나가 안주를 만들어 경허 스님에게 올렸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 제산 스님의 행각은 대중 사이에 알려지고 말았다.

산중은 변고가 난 것처럼 야단이었다. 남자 몇 명이 모이기만 하면 모두들 경허 스님과 제산 스님을 성토하기 바빴다.

당시 주지 남전 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 제산 스님을 찾아 소문의 진위를 물었다.

제산 스님은 태연히 "제가 경허 스님을 위해 한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남전 스님으로서는 제산 스님을 만나기 전 낭설이 겹쳐서 하며 물었는데 제산 스님의 당당한 소리에 어이가 없었다. 남전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다.

남전 스님은 믿기지 않았다. 평소 법력이 높아 추앙받는 선지식 경허 스님, 또 학덕과 율행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제산 스님이 아닌가.

남전 스님은 며칠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스님의 고민은 경허 스님의 법력에 대한 의구심에까지 이르렀다.

남전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문을 찬찬히 들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감명이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남전 스님은 곧바로 선방에 들어가 기부좌를 틀고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신심이 발한 남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남전 스님이 하루는 대중공양을 하는데 발우를 퍼며 제산 스님에게 "스님, 이 발우가 안보입니다"하는 격의 법담을 걸었다. 스님의 높은 경지에 모든 좌중은 크게 놀랐다.

그 후 남전 스님 역시 제산 스님 이상으로 경허 스님을 신봉하게 돼 경허 스님에 대한 소문들을 진정 시키는데 앞장섰다.

해인사에서는 어느 날 만공·제산·남전 스님이 함께 자리해 경허 스님의 법따르기를 건주는 기회가 있었다.

제산 스님은 "누가 뭐라해도 경허 스님께 계속 곡차와 닭고기를 바치리다" 하자 남전 스님이 말을 받아 "경허 스님과 같은 어른을 위해서라면 닭이 아니라 소도 잡아 올리기를 조금도 거리낌이 없소"라고 대꾸했다.

이에 만공 스님은 "나는 전쟁이 나 깊은 산중에 모시고 살다가 양식이 떨어져 공양 올릴 것이 없게 된다면 나의 살점을 오려서라도 스님의 생명을 유지케 해 스님이 중생제도 하시게끔 해 드릴 자신이 있소"라고 말했다.

⑦ 마정령의 목동들

경허 스님이 마정령이란 고개를 넘을 때의 일이다. 산에서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던 초동들이 스님을 보고 "저 중보라, 이상하다"며 웃었다.

그때 스님의 행색은 머리는 깎았으나 수염은 길렀으며 맨발에 한소에는 담뱃대를 잡고, 다른 손에는 떡과 과자가 든 자루를 둘러매고 있었다.



그림·박구원

아이들의 웃음에 스님이 되물었다. "아이들아, 나를 알겠느냐?" 아이들이 "저희들은 스님을 알지 못합니다"고 답하자 스님은 "그러면 나를 보느냐"고 물었다. "예, 지금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나를 어찌 본다고 하느냐?"

스님은 차고 있던 주장자를 내어주며 이르길 "애들아, 누구든지 이 막대기로 나를 한번 때려봐라, 만약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때리기만 한다면 수고한 대가로 이 자루에 든 과자와 떡을 다 주마"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영리한 아이가 나와 "스님, 그게 정

"이 막대기로 나를 때려봐라 제대로 때리면 과자를 주마" 아이들은 주장자로 후려쳤으나 스님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다"

말입니까?" 하며 스님이 내주는 주장자를 받아 쥐고 힘껏 후려쳤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아이들을 보고 "때려봐라, 때려봐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다. 만약 때렸다면 부처도 때리고, 또 조사도 때리고, 또 세세 제불과 역대 조사 내지 천하 노화상을 한 방망이로 때려 갈길 것이니라"고 말했다.

이에 초동들은 "스님을 아무리 때려도 때리지 못했다"고 하니 과자와 금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아닙니까?"라며 항의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며 "여기 있다. 그럼 가져가거라" 하며 떡과 과자를 내주고 마정령을 넘어가며 노래를 한 곡조 읊었다.

온 세상 혼탁하나 나 홀로 깨었어라. 우거진 수풀 아래 나는 해를 보내리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명!**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황금, 실금염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곁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각성 큰스님 “금강경(金剛經)” 고운사 특강

금강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으로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있는 경전으로 금번 고운사에서는 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금강경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무루 참석하시어 금강경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사구계 한 귀절을 들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준다면 향하사 모래수 보다 많은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니, 부처님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로 무한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 2월 1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합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
- 참가대중 : 사부대중 누구나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이번 강의부터 "승려연수교육예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학인모집

- 1) 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쇠종, 각단예불, 의식
-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판옥, 천도제(49재), 각종의식
-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계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육바라, 사다라니바라
- 4) 고급반 : 운심계,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원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 ▷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장소 : 제1장소: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제2장소: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 수강료 : 6개월간 무료

○ 신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토포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팩스 768-8413